"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전남교육청, 제1회 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도내 장애학생 1500여 명 오는 27일 영암서 한마당

"장애학생 땀방울이 꽃망울 되도록 많은 관심 필요"

전남 장애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암군 일원(실내체육관 외 10개 경기장)에서 제1회 전라남도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전남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남장애인체육회와 영암군이 주관해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급) 학생과 지도교사 등 1,500여 명이 참가해 어울림 한마당을 펼친다. 장애학생이 주인공이 돼 자신의 체력을 측정하고 스포츠 정신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이다.

대회는 육상, 보치아, 수영 등 10개 정식종목과 티볼, 핸들러, 프라잉디스크 등 7개 뉴스포츠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세부종목 별로 운영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도내 장애학생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경기장 밖에서는 전남비즈쿨이 주관하는 30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경기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바리스타, 네일아티스트, 요리사 등 진로·직업체험 부스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체험의 시간을 갖게 된다.

도교육청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참가하는 장애학생들의 땀방울이 자신감의 꽃망울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 체육대회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자심감을 키워 나가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대회 당일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참가 선수 및 지도교사들이 즐겁게 대회에 참여하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황제주차' 무안군 복지책임자

과태료 부과받고 또 적발… "수술 후 몸 안좋은 상태 비상근무" 해명

무안군 복지문화국장이 군청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일삼아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23일 무안 주민 등에 따르면 무안군 A 복지문화국장은 지난달 자신의 차량을 청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주민 신고로 적발돼 과태로 1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A국장이 상습적으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포착됐으며, 이달 초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개 면을 차지하는 불법 주차를 해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주민 김모씨(48)는 "무안군 전체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행태"라며 "문제의식을 떠나 이건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질책했다.

현재 무안군청에는 공직자들의 주차공간이 행정동 뒤편에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군청 앞마당에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 주차장을 대폭 확대했다.

무안군 복지문화국장이 군청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일삼아 주민들의 논총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김산 무안군수는 연 초 직원들에게 "민원인 주차장에 직원들은 가급적 주차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국장은 "지난 5월 폐암 수술을 하고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 비상근무로 인해 부득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주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시청각장애인도 스마트폰 쓰세요"

삼성전자 서남아총괄과 제일기획 인도법인이 공동으로 개발한 시청각장애인용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 '굿 바이브'를 교육하고 있는 모습.

삼성 '굿바이브' 캠페인

"시청각장애인은 스마트폰 쓸 수 없나요?"

삼성전자와 제일기획이 13억 인구대국 인도에서 시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본격 시작하면서 현지의 관심을 받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남아총괄과 제일기획 인도법인은 최근 인도에서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삼성 굿 바이브(Samsung Good Vibes)'를 개발해 선보였다.

삼성전자 전용 앱스토어인 '갤럭시 스토어'에 등록된 굿 바이브는 모스부호와 스마트폰의 햅틱(Haptic, 촉각) 기능을 결합한 시청각장애인용 의사소통 지원 앱이다.

스마트폰 기기 외부를 손으로 두드리는 햅틱 기능을 모스부호에 착안해 메시지로 전환해 의사소통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텍스트 외에 음성으로도 전환이 가능해 일반인과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굿 바이브 다운로드가 가능해져 점차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4만4천명 시설거주

"탈시설 정책 통해 자립 도와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정책추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국무총리에게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의 구성과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를 담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2000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17년 기준 1517개소가 있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693명이다. 여기에 더해 2015년 기준 정신요양시설에 9990명, 노숙인 시설에 4089명이 거주하는 것을 포함해 대략 4만47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거주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소하는 비율이 67%, 10년 이상 입소한 비율이 58%로 조사됐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가 44.4%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요양원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6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은 1개 방에 '3~5명'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52.4%, '6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36.1%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 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하기 어렵다' 34.8%, '기상과 취침시간을 결정할 수 없다' 55.0%, '식사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75.4%로 응답했는데,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은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거주시설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이후 10~20년 심지어 사망 때까지 살고 있다"면서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다양한 삶의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